

샤오홍(蕭紅)의 <소성삼월(小城三月)> 연구

成玉禮*

<목 차>

1. 서론
2. <소성삼월>에 나타난 샤오홍의 여성 의식과 접근방법
3. <소성삼월> 작품분석
 - 3.1 추이(翠)이모의 서발티티
 - 3.2 근대 지식인 남성과 여성 서발티티의 관계
4. 결론

1. 서론

샤오홍은 일본의 대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의 여성 서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녀가 창작한 많은 작품은 주로 고통받는 하층민들 특히 여성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고향인 일본 침략하의 동베이 지역을 떠나 중국 각지를 떠돈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그녀의 작품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하 중국인의 고통을 그려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창작이라 평가받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을 주류 문단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생사장(生死場)》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루쉰(魯迅)을 비롯하여 당시 문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남성 지식인들이 이 작품을 민족국가 담론으로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작품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생존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샤오홍의 작

* 翰林大學校 中國學科 講師(aihongzhu@daum.net).

품이 갖는 의미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민족국가담론으로 해석하던 작품에 대한 기존 비평이 재고되면서, 작품에 표현된 여성의 삶과 그들의 목소리가 주목받게 된다. 샤오홍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류허(劉禾)는 <텍스트, 비평 그리고 민족국가문학(文本, 批評與民族國家文學)>에서 《생사장》이 근대 지식인 남성주체에 의해 어떻게 민족주의 담론 혹은 민족국가담론으로 읽혔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다이진화(戴錦華)와 멩웨(孟悅)는 민족주의 담론이 아닌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도 했다.¹⁾ 이들은 민족주의와 민족담론에 초점을 맞춘 기존 비평이 샤오홍의 여성의식과 여성의 생존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비평계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분석을 토대로 하여 샤오홍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생존조건에 관한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소성삼월>의 경우, 전쟁의 상황임에도 민족담론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신문화운동 이후의 전근대와 근대적 삶이 뒤섞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한 여성의 삶의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샤오홍의 여성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샤오홍은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 속에 사회의 저층에 존재하는 빈곤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다

1) 劉禾, <文本, 批評與民族國家文學>, 王曉明 主編, 《批評空間的開創》(上海: 東方出版中心, 1998), 301쪽. 류허는 이 글에서 샤오홍의 텍스트가 루쉰의 평가처럼 “북방 인민의 삶에 대한 끈질김과 죽음에 대한 몸부림”을 나타냈다고보다는 농촌 여성의 생활 경험을 표현한 것이라 보고서, 민족의 흥망이라는 안경이 루쉰으로 하여금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여성 생존에 관한 문제를 읽어내지 못하게 했다고 분석하였다. 다이진화(戴錦華)와 멩웨(孟悅) 역시 《浮出歷史地表》(河南: 河南人民出版社, 1989)의 샤오홍 작품을 분석하는 11장(<肖紅: 大智勇者的探尋>)에서 “광활하게 생사의 박투가 진행되던 항일전쟁의 거대한 천지는 그야말로 드넓었지만 여성의 하늘은 오히려 좁아졌다”(182쪽)면서 항일전쟁 시기 갖 아들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생존에 관한 목소리가 샤오홍의 작품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작품 속에서 여성의 시각을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이들은 “항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샤오홍 자신이 민족, 애정, 여성의 삼중적 위기에 처해있음을 발견하고 주류문화진영(항일 민족주의)과 여성으로서의 자아 사이에 결단력 있는 선택이 필요”했으며, 샤오홍은 후자를 선택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의 첫 출판에서 샤오홍의 필명 중 하나인 ‘肖紅’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 없이 그대로 옮긴다.

양한 형태의 억압을 받고 있던 여성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샤오홍이 겪었던 자기 삶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도 했다. 좌익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만큼, 샤오홍은 자신의 작품에서 빈농, 거지, 과부,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주로 그려내었다. 특히 극한의 빈곤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사회 최하층에 존재하는 여성의 삶을 꿰뚫히게 그려냈다는 사실은 당시의 여타 여성 작가의 서사와 다른 특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샤오홍의 여성 서사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사용하여 <소성삼월>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성삼월>에 나타난 여성 생존의 문제와 근대담론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생존문제에 대한 샤오홍의 관심은 주로 직접적 폭력과 억압 속에 놓인 여성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이 처한 억압의 상황은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민족적 탄압, 전쟁의 폭력, 지주계급의 수탈 등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억압에 처한 여성의 삶은 샤오홍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중국사회의 근대화 추구의 문제와 종종 결합시켜 이해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샤오홍 작품에 대한 중국의 연구는 그녀의 작품에서 반봉건적 특징과 함께 빈농과 빈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계급적 특징을 읽어내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일전쟁 발발 이후 창작된 샤오홍의 몇몇 작품에서는 이러한 여성 삶과 연관된 반봉건적 주제 의식과 더불어 근대 지식인 남성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소성삼월>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 중 하나로, 자유연애 및 결혼 그리고 남녀평등과 같은 유형의 근대담론이 과연 여성 생존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나아가 여성의 주체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근대 지식인 남성들로 대변되는 서구 중심의 근대담론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구 담론의 식민화'²⁾를 문제시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2) 찬드라 모헨티, <서구인의 눈으로: 페미니즘 연구와 식민 담론>, 유제분 역음, 《탈식민

한 것이다.

둘째, 작품의 여주인공인 추이(翠)이모의 형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여성 서발턴이라는 개념은 여성과 여성 삶의 양상을 단일하고 통일된 형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 추이이모는 사회적 약자이자 제도로부터 소외된 존재이면서, 전근대와 근대적 삶의 경계에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사회의 주변적 존재를 서발턴으로 보고, 이 개념을 통해 '다층적인 억압체계들 중 성, 인종 범주를 특권화하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는 획일적인 여성의 본질을 부정'하게 한다. 이는 '서구중심의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자, '제국주의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는 획일적인 이분법적 구조와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을 통해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³⁾ 추이이모라는 형상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전근대적 삶과 근대적 삶 양자에 대한 질의는 이 양자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비극의 원인이 일면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든다. 더불어, 전근대 대 근대라는 이원대립적 틀이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단일한 형태로 해석하게 만드는지를 살피게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을 살피기 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의 분석 틀을 빌려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서울: 현대미학사, 2001). 이 글에서 찬드라 모헨티는 자신이 분석하고자 하는 '식민화'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여기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서구의) 페미니스트 텍스트에서 '제3세계 여성'을 단일하고 통일된 주체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화는 대개 '담론적' 식민화를 일컫는 용어로서, 이는 미국과 서구 유럽의 페미니즘을 주로 참조하는 저작에서 사용된 특정한 분석 범주들이, 제3세계 여성에 대한 '학문'과 '지식'을 전유하고 성문화하는 양식에 초점을 둔다.", 77쪽.

3)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서울: 여이연, 2001), 117-123쪽.

2. <소성삼월>에 나타난 샤오홍의 여성의식과 접근방법

길지 않은 샤오홍의 창작 생애에 있어 중일전쟁 발발 이후 4년여의 시간은 그녀의 창작 후기에 해당한다. 전쟁의 환란과 병세의 악화, 그리고 이어지는 피난과 떠돌이로 점철된 이 시간 동안 샤오홍이 창작한 작품은 양과 질에 있어서 더욱 성숙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샤오홍은 샤오쥘(蕭軍)과 결별하고 중일전쟁에 있어 중요 근거지였던 산시민족혁명대학(山西民族革命大學)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선택으로 인해 샤오홍은 당시 문단의 주요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비난과 비판이 창작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⁴⁾ 오히려 샤오홍은 항일전쟁의 면모를 찾을 수 있는 후기 소설집 《광야의 외침(曠野的呼喊)》과 장편소설인 전쟁 중 지식인 남성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마보러(馬伯樂)》 및 자전적 소설 《후란강 이야기(呼蘭河傳)》 등을 창작하였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성삼월> 역시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샤오홍 창작 생애에 있어 최후의 작품⁵⁾이자 여성 삶에 대한 또 다른 인식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 의의를 지닌

4) 사진청(沙金城)은 <評蕭紅後期短篇小說與散文創作>, 《蕭紅研究七十年(下)》(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1), 157쪽에서 샤오홍의 후기창작이 초기 창작에 비해 덜 평가되는 상황을 언급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명쾌와 다이진화의 샤오홍에 대한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샤오홍 후기창작을 대표하는 《呼蘭河傳》가 후평(胡風)과 마오둔(茅盾) 등 당시 대부분 남성 비평가들에 의해 낮게 평가되는 사실을 통해 샤오홍의 창작세계가 갖는 여성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성의 운명 즉 역사적 운명에 있어 여성의 결말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찍이 써졌다. 유일하게 써지지 않은 것은 남성 진영들 속에서 쓸 틈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여성과 개인의 생존을 침몰시키고, 여성과 개인의 모든 이야기를 정해놓았던 역사 자체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샤오홍이 쓰고자 선택했던 것이었으며, 샤오홍이 동시대 여성작가 혹은 남성작가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었다.” 孟悅·戴錦華, 《浮出歷史地表》, 199쪽.

5) 이 외에 최후의 작품으로 언급되는 것은 병상에서 구술한 것을 뤼빈지(駱賓基)가 받아쓴 작품인 <紅玻璃的故事>가 있다. 전쟁의 포화 속 병상에서 구술로 창작된 작품이기에 갖는 한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작품은 전쟁상황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 한 여성이 자기 삶의 부당함과 적막함을 깨닫는 과정과 이러한 인식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창작 후기 샤오홍의 관심이 여성생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추이이모라는 한 여성의 삶과 경험을 짧은 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소성삼월>은 샤오홍 창작에 있어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생사장》과, 그리고 <왕씨 아줌마의 죽음(王阿嫂的死)>을 시작으로 <손(手)>, <다리(橋)>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최하층의 빈곤한 이들의 삶을 통해 사회 비판적 의미를 담아내었던 작품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재가한 과부의 딸이 집안이 정한 결혼을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병을 불러들여 자살과 유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까닭이 작품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죽음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당한 사회제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⁶⁾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때의 사회제도란 봉건적 가부장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하여, 작품에서 직접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되는 추이이모와 '나의 사촌오빠와의 관계는 근대적 자유연애로 분석되며, 작품은 전근대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근대화에 대한 추구라는 주제를 담아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주인공인 추이이모의 비극적 죽음을 전근대적 문화 대 근대적 문화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샤오홍 현상(蕭紅現象)》을 쓴 황푸샤오타오(黃甫曉濤)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추이이모가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가 그녀가 몸담고 있던 기존의 전통적 삶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전통적 동양 여성'이었던 추이이모는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구성하는 강렬한 내적 충돌이 추이이모의 커다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게다가 이전 작품에서 주로 과부의 삶을 경제적, 신분적 수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양태로 그렸던 것과는 달리, <소성삼월>과 이 작품은 각각 과부의 딸과 실제로 남편을 잃지는 않았으나 홀로 살고 있는 과부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보여준다.

6) 대표적인 샤오홍 연구자인 거하오윈 역시 이 작품의 비극이 사회제도 즉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葛浩文, 《蕭紅傳》(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1), 129쪽.

심리적 비극을 형성하였다. 한편으로, 그녀는 단지 표면적으로 일정 정도의 신문화적 분위기를 접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늘 자신도 '공부'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문명에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기를 갈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격, 기질에서부터 행위의 규범, 도덕관념 등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또한 민속 부락 공동체의 행위와 일치하는 인물로, 진정한 전통적인 동양 여성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새로운 생활을 추구할 수 없었다.⁷⁾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자면, 추이이모의 비극의 원인은 그녀 개인의 문제에 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근대적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못한 '전통적 동양 여성'이 갖는 한계가 작품의 비극 원인이 되는 것이다. 죽음의 원인을 두 문화로 인한 내적인 충돌과 그로 인한 비극으로 보는 이해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근대적 봉건종법제도에 의한 것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해석 역시 <소성삼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양상을 보여준다.

추이이모 연애에 대한 비극적 묘사는 그녀의 성격을 드러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작가가 비극을 만들어낸 중대한 사회적 원인을 폭로했다는 데 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봉건종법제도이며, 구(舊) 중국인의 우매한 사상관점이다.⁸⁾

후자는 전자보다 더 분명하게 봉건종법제라는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보자면, 추이이모의 비극적 죽음의 원인 중 하나는 그녀가 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전통적인 여성 형상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봉건종법제라는 전근대적 사회가 갖는 우매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분석에 있어서 공통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전근대적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구(舊)문화와 이를 수용하고 살아가는 전근대적 여성의 삶을 우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화운동 이후 봉건종법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 삶의 비극 원인은 주로 전근대적 가부장제로 인해 자유의지가 박

7) 皇甫曉濤, 《蕭紅現象》(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0), 99-100쪽.

8) 慕衛軍, <一個深沈內向的女性——談《小城三月》中的翠姨刑象>, 《蕭紅研究七十年(下)》(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1), 152쪽.

탈된 채 진행되는 강제 결혼, 그리고 남성애에 대한 종속 및 남성의 폭력 등에 의한 것으로 그려졌다.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과 여성에 대한 군림이 봉건종법제 즉 근근대적 가부장제 때문이라 이해됨으로써 자유연애와 결혼과 같은 근대담론은 여성 생존 조건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화운동 이후 새로운 여성 주체로 표현되던, 근대적 지식과 자유연애를 추구했던 신여성이 실질적으로 젠더 주체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다⁹⁾는 사실은 그녀들의 생존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샤오홍은 팽배한 민족담론과 민족국가담론 및 근대화담론 속에서도 여성 생존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던 여성 삶의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녀의 여성의식을 살피는 데 있어 자주 거론되는 산문인 <《대지의 딸》과 《동란시대》(《大地的女兒》與《動亂時代》)>는 근대지식인 남성에게 있어 여성 삶의 문제란 여전히 부차적이며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 샤오홍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생각했다. 나는 감히 믿는다. 그날 저녁의 비웃음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인인데다 유신(維新)인사이지 복고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 역시 농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활동적인 심리에서 다들 떠들고 웃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늘 여자들이 야깃거리로 삼는 것일까?¹⁰⁾

두 명의 여성작가(스메들리와 린코린케)에게 관심 갖고 그들의 작품을 이해, 공감하고 있는 샤오홍 앞에서 '이게 너희 여자들의 책이야?', '《대지의 딸》이 이렇구나, 웃을 안 입었어, 봐! 봐!'라며 떠들고 웃는 지식인 남성과의 일화를 쓴 이 산문은 이 시기 샤오홍이 경험한 여성 생존에 대해 근대 지식인 남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살필 수 있는 샤오홍의 문제의식은 근대 지식인 남성을 주요 묘사 대상으로

9) 劉乃慈, 《第二/現代性: 五四女性小說研究》(臺北: 臺灣學生書局, 2004), 119쪽.

10) 蕭紅, <《大地的女兒》與《動亂時代》>, 《蕭紅全集(下)》(哈爾濱: 哈爾濱出版社, 1991), 1084쪽.

삼고 있는 그녀의 작품들에서 그들이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성삼월>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근대 지식인 남성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추이이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그들의 영향 하에서 추이이모는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생존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소성삼월>이 갖는 특징은 바로 이 같은 근대 지식인 남성과 추이이모의 관계에 대한 묘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이이모가 전형적인 동양여성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측면보다, 서구 근대를 체화하고 있는 지식인 남성이 추구하는 근대담론 속에 실은 여성 생존의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성의 생존조건과 근대 지식인 남성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샤오홍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본고에서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의 몇몇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사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단일화한 개념으로 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세계 각지 여성 삶의 차이를 살피지 않는 제1세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측면에서, '서구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대항담론을 펼쳐온 페미니즘이 제3세계 여성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재현하는가'¹¹⁾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또한 탈식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억압적 지배 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어온 타자들을 복원하는 것'¹²⁾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세계 여성은 이중 식민화, 즉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토착 및 외래의 가부장제를 함께 겪고 있는데,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그녀들이 양자 모두에게 잊힌 희생자라는 사실에 착안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성삼월>의 추이이모는 재가한 과부의 딸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봉건종법제도 하의 최하위층 여성인 동시에 서구 근대를 동경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추이이

11) 유제분 엮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서울: 현대미학사, 2001), 14쪽.

12) 유제분 엮음, 위의 책, 14쪽.

모는 전근대와 근대의 경계에 선 인물로 이해될 수 있는 한편, 그녀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 양자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추이이모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 속의 젠더 서발턴 즉, 여성 서발턴 개념을 빌려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원래 서발턴은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 과정 속에서 그람시가 창안한 개념으로,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다양한 사회 하층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데서 출발하고 있다.¹³⁾ 나아가 이 개념은 인도의 서발턴 연구집단을 거쳐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대표 논자인 스피박¹⁴⁾에 이르러, 서구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이 지니는 억압성과 폭력성'¹⁵⁾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사용되는 서발턴 개념은 서구 중심의 인식론이 비서구를 타자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단순화시켜 이해하는 데에 대한, 즉 비서구 여성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일괄적으로 단일화된 '제3세계 여성'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기존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거론되는 작품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서구 제국주의의 흔적을 읽어내는 한편, 비서구 여성의 삶을 서구 주류 담론으로 분석할 때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특수성이 어떻게 묵살되는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소성삼월>의 추이이모라는 한 여성의 비극은 서구 근대를 쫓았던 당시 주류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다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문화운동 시기와 좌익문학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 나아가 민족국가담론이 주류담론으로 자리하던 전쟁 시기에, 중국현대문학에서 여성의 문제는 주로 이들 주류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소성삼월>이 그려내는 신문화운동 시기 근대 지식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근대담론 속에서 여

13) 김현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그람시의 개입 — 서발턴과 재현>, 《서양사론》 제140호, 한국서양사학회, 2019년, 59-63쪽.

14)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서울: 그린비, 2016) 중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참조.

15) 박종성, <역자 서문>, 가야트리 스피박 지음, 문화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고양: 인간사랑, 2008), 9쪽.

전히 타자화되고 있는 여성의 생존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추이이모의 형상과 그녀의 삶에 대한 이해 및 근대 지식인 남성과의 관계가 드러내는 이러한 타자화된 여성을 살피기 위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비평을 차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소성삼월> 작품 분석

3.1 추이(翠)이모의 서발터니티

린센즈(林賢治)가 분석했듯, 샤오홍의 창작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자주 자주 등장하는 관점은 여성과 빈곤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¹⁶⁾ 샤오홍은 사회 저변에 존재하는 온갖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자주 그려냈으며, 가난, 봉건종법제 그리고 민족 침탈 하에서 여러 탄압과 억압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던 여성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었다. 그녀의 고달픈 개인사는 빈곤과 여성을 창작에 있어 주요한 대상으로 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들을 톺진하게 그려낼 수 있게 했다. 샤오홍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인 <소성삼월> 역시 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녀 창작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재가한 과부의 딸인 추이이모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녀가 어떻게 봉건종법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소외되는지, 그리고 근대의 물결이 흘러든 소성에서 어떻게 근대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및 이 양자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자살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독한 빈곤과 노골적

16) 린센즈는 <蕭紅和她的弱勢文學>, 《蕭紅研究七十年(上)》(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1)에서 샤오홍의 문학에 있어 여성과 빈곤한 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본질적이라 분석하면서, 여성과 빈곤한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弱勢)로 보고 만약 '서발턴 문학(底層文學)'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들을 다루고 있는 샤오홍의 문학이 그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54-55쪽.

폭력, 탄압, 소외에 노출된 여성의 삶을 주로 그렸던 샤오홍의 이전 작품과 비교하자면, 추이이모라는 여성이 처한 상황은 다른 특징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여주인공인 추이이모라는 과부의 딸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해 확답을 얻기 힘들 정도로 소외의 양상이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여성 소외의 현상이 일면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할 수 있다.

작품은 추이이모의 짧은 삶을 비유하기라도 하는 듯, 시작과 결말에서 소성에 잠시 찾아든 봄에 대해 묘사하는 것 외에는, 추이이모라는 한 여성의 성격과 그녀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추이이모의 짧은 삶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는 '나'라는 어린 여성이며, 추이이모와는 혈연에 얽매이지 않은 친척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¹⁷⁾ 게다가 '나'는 근대 교육을 받고 있는 까닭에, 즉 서양 학당을 다니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추이이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라는 측면에 있어 추이이모의 여성 서발턴으로서의 특징은 가장 먼저 그녀가 재가한 과부의 딸이라는 데서 드러난다. 과부의 재가는 그 자체가 봉건종법제에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며, 과부들은 사회의 최하층인으로 인식되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과부는 샤오홍이 자주 그려내는, 봉건종법제도 하의 여성 서발턴을 대표하는 형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부가 추앙받을 수 있는 길은 열녀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가부장제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추이이모의 어머니는 과부였지만 재가했기 때문에 봉건적인 남성중심 가부장제의 규율을 범하는 존재가 된다. 봉건적 종법제에서 여성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도덕윤리였던 가부장제에 대한 순종은 한 명의 남성만을 섬길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러한 과부의 개가 금지와 수절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배타적 성적 지배를 윤리화한 것이었다.¹⁸⁾ 먼저, 추이이모는 이러한

17) '나'의 어머니는 계모이며, 추이이모는 나의 어머니와 실질적인 자매여야 하지만, 나의 외조모 역시 나의 어머니에게 있어 계모인데다, 추이이모는 이 외조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기 때문에 이 삼자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추이이모는 '나'에게 있어 계모의 계모의 딸이 된다.

윤리를 어긴 과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해야 했다. 작품은 아래와 같이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이 머무는 공간을 묘사함으로써 그녀가 환영받지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한편, 그녀가 경계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추이모는 외조부의 뒤뜰에서 살았다. 널판장으로 나뉜 곳이라, 큰 소리로 부르면 들고서 올 수 있었다.

외조부가 사는 집과 추이모가 사는 집은 단지 널판장 하나로만 막혀있었지만, 통하는 문이 없어서 큰길로 나와 대문으로 들어가야 했다.¹⁸⁾

작품은 널판장 하나로 추이모가 사는 공간과 그녀의 어머니가 재가한 집안인 외조부네가 사는 공간 사이를 막음으로써 추이모가 처한 상황의 독특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완전하게 내부인도 완전하게 외부인도 아니라는 것으로, 그녀가 경계에 놓인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소성(小城)이라는 공간은 전근대적 삶과 근대적 삶이 뒤섞인 공간으로, 추이모로 하여금 이 같은 삶의 두 양태를 모두 경험하게 한다. 내적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경험은 추이모가 전근대와 근대적 삶이 만나는 경계 위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계에 놓인 인물로서의 추이모의 형상은 그녀의 성격에 대한 묘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에서 추이모는 전형적인 동양적 여성의 외면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끈질기게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요조숙녀’와도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끈질긴

18) 강명관, 《열녀의 탄생》(과주: 들베개, 2013), 34-49쪽. 열녀 담론에 숨겨져 있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종속을 분석하고 있는 이 글에서 필자는 과부의 개가를 ‘절개를 잃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죽은 남편 이외의 남성과의 성적 교섭에 대한 국가-권력 제도의 개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소성삼월>에서 역시 과부 개가의 문제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가한 순간 그 여성이 낳은 아이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혔다.

19) 蕭紅, <小城三月>, 《蕭紅全集(下)》(哈爾濱: 哈爾濱出版社, 1991), 677-678쪽.

성격을 숨기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작품은 한바탕 유행이 지나간 뒤에야 자신이 원하던 신발을 찾아 며칠 동안 해가 저물 때까지 성내의 모든 신발집을 돌아다니는 사건을 통해, 그녀가 순종적이고 수동적이지만 한 여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동행했던 서술자인 '나' 역시 이러한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추이이모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까지나 재가한 과부의 딸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야 했으며, 원하는 신발을 결국 사지 못함으로써 추이이모는 그것을 자신의 타고난 불운한 처지와 연관시키게 된다.

과부의 딸이기에 받는 소외는 집안이 정한 결혼과 함께 추이이모라는 인물을 봉건 가부장제 속 수동적 여성의 전형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근대적 삶을 경험하고서 그것을 동경하게 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결혼과 정해진 여성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집안이 정한 결혼으로 인해 여동생이 그녀의 곁을 떠나자 '나'의 외조부는 추이이모를 '나'와 함께 지내게 한다. 이때부터 추이이모는 '나'의 집안을 통해 근대적인 삶을 접하게 된다. 여동생과 함께 적막한 생활을 해야 했던 추이이모에게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하는 떠들썩한 집안의 온갖 행사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 속에서 그녀는 여학생 신분인 '나'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자신도 여학생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형태는 그녀에게 낯선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나'의 집안의 입장에서조차 추이이모는 낯선 존재였다. 그녀는 집안의 행사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경계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집안의 분위기가 아무리 근대적이더라도, 집안 행사에 남녀가 아무리 동등하게 참여 가능하더라도, 집안에서 정한 추이이모의 의사가 배제된 결혼을 그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소성이라는 공간에 여전히 전근대적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다음과 같은 작품 속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에게 자유연애와 결혼이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추이이모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남학생들의 결혼에 관한 사정은 우리 현에 이미 몇몇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어떤 이는 결혼한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이는 아내를 맞이한 뒤, 아내는 다른 방에서 지내게 하고는 자신은 서재에서만 생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여자의 편에 서서, 남자들이 잘못 배웠다고 말했다. 글자를 모르고 여학생도 아닌 부류의 여성을 보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모두들 그와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매일 결혼의 부자유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결혼상대를 정해줬는데 하필 오늘날 다들 자유를 요구한다...중략... 이걸 모두 잘못 배워서(念壞) 그런 거다.²⁰⁾

근대 지식인 남성과 결혼한 불행한 여성들은 근대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연애와 결혼이 갖는 근대적 가치를 인지한 근대 지식인 남성의 입장에서, 집안이 정한 상대와의 강제에 가까운 결혼은 불행한 것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인용 속의 여성들처럼 결혼 후 버려지는 그녀들의 불행은 대부분 근대 지식인 남성들의 불행에 가려져 표현된다. '근대적 지식과 자유연애를 추구하던 신여성이 실질적으로 젠더 주체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자유결혼과 연애라는 근대담론에서 타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여성 작가들이 그려냈던 신여성의 신산한 삶과 마찬가지로, 근대지식 혹은 근대 지식인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근대적 삶을 탈피하지 못한 여성은 타자의 위치에 놓인 채 근대담론의 희생양 혹은 계몽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도맡았다고 할 수 있다.²¹⁾

여성 서발턴으로서 추이이모가 갖는 서발터니티란, 가장 먼저 그녀가 지닌 경계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근대적 가부장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제도로 이해하는 근대담론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 전근대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 특히 재가한 과부의 딸이 처한 소외와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20) 蕭紅, <小城三月>, 685쪽.

21) 혹은 이들은 철저하게 계몽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때 여성의 계몽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계몽으로 이루어지는데, 즉 계몽주체인 남성이 전근대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을 계몽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肖小雲, <突圍與陷落——從現代文學女性寫作看女性啓蒙的艱難性> (南京大學校 박사논문, 2016) '서론' 참조.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삶을 접한 뒤 오히려 그녀가 비극적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의 집안의 근대적 인물 특히 남성들이 그녀를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이것 역시 여성의 소외와 타자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추이이모는 자신이 접한 근대적 삶을 계기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작품은 소외되고 타자화된 여성 생존 조건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그녀의 죽음을 그려내고 있다. 근대적 경험이란 추이이모에게 짧은 소성의 봄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고 있다. 잠시 왔다가 지나쳐 가는 짧은 봄은 그녀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죽음 원인을 전근대적 가부장제가 강제한 결혼으로만 한정할 수 없게 하며, 오히려 근대적 삶과의 연관 속에 죽음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게 한다. 그것은 근대 지식인 남성을 대표하는 '사촌오빠'와 추이이모의 관계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2 근대 지식인 남성과 여성 서발탄의 관계

집안이 정한 결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에서 추이이모는 자살과도 유사한 죽음을 맞이한다. 추이이모의 죽음이 이처럼 강제결혼을 앞두고 그것을 피하려는 의도와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라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나'의 사촌오빠와 추이이모의 관계를 일종의 자유연애로 이해하면서 더욱 타당성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오빠와 추이이모의 관계를 연애로 볼 수 있느냐는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추이이모와 사촌오빠와의 관계를 연애일 것이라 '추측'하는 인물은 서술자 '나'와 '나'의 계모 두 사람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서술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²²⁾ 연애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토대로 이 작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사실 더욱 많은 것은 이처럼 애매한 정서로 충만한 무지와 낭만화에 대한 개체의 상상이다. 추이이모 개인의 무지는 현대화라는 문화 배경 아래에서 일찌감치 서양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모호하게 서술되는 남성-에게 숭배감과 '스스로 비하'하는 심리를 띤 환상을 줌으로써 숭배하는 대상을 치환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대문명을 표상하는 가상적 자아인 '오빠'를 구축해내는 것이며, 나아가 봉건적 혼인의 속박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개인의 운명을 낫설고 이상화된 정신으로 표현되는 대상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가 정감의 진실이 결여된 것으로, 결국 개체의 영혼으로 하여금 내외적 역량이 서로 찢어져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나아가게 만든다.²³⁾

<소성삼월> 속 사촌오빠와 추이이모의 관계는 인용에서 알 수 있듯 매우 모호하게 그려진다. 인용문은 추이이모의 비극 원인 중 하나를 실체가 아닌 상상에 대한 보답 받을 길 없는 추구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사촌오빠는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한 명의 근대 지식인 남성으로 묘사되었다기보다는 근대적 삶이 인격화되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작품은 근대 지식인 남성인 사촌오빠를 아름다운 외모에 많은 재능을 지닌,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남성으로 그리고 있으며²⁴⁾, 이와 반대로 또 다른 과부의 아들인 추이이모의 정혼자는 왜소하고 못생긴 인물로 그리고 있다.²⁵⁾ 추이이모의 정혼자가 근대 지식을 습득한 남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적막한 생활에서 벗어나 '나'의 집에서 근대적 삶을 접하게 된 추이이모가 보여주

22) 작품은 모호하게 두 사람을 엮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애로 표현되는 부분은 서술자인 '나'의 다음과 같은 서술밖에 없다. "나에게는 이모가 한 명 있는데, 나의 사촌오빠와 아마도(大概) 연애한 것 같다." (蕭紅, <小城三月>, 677쪽)

23) 宋藝姦, <內外力量的反向撕裂, 靈魂幻滅的必然落腳>, 《青年文學家》, 2020년 제2호, 28쪽.

24) 蕭紅, <小城三月>, 688쪽. "내 사촌오빠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꿈은 코에, 짙은 눈동자, 입술도 예뻐서, 머리 역시 단정하게 빗질되어 있었다. 키는 커서 걸음걸이는 시원시원했다. 아마도 우리 집안 가족들 중 그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25) 蕭紅, <小城三月>, 686쪽. "그녀의 미래 남편을 나는 본 적 없다. 외조부의 집에서 말이다. 그는 키도 작고 왜소한 생김새로, 남색의 면 두루마기와 검은색 마고자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큰 짐차를 모는 사람들이 쓰는 귀를 덮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중략... 그는 17살밖에 안 됐는데, 시골의 사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는 동경 어린 태도는 한 인격체인 사촌오빠에 대한 연정이 아닌 근대적 삶에 대한 추구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에 있어서 근대적 삶과 근대적 가치의 도입은 대부분 지식인 남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유사하게 '나'의 집안에 넘치던 근대적 분위기 역시 집안의 지식인 남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의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추이이모는 근대 지식인 남성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전근대적 가부장제를 의미하는 정혼자에 대한 공포와 대조를 이룬다.

하필 혼수를 구매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안내하던 이들 역시 오빠가 소개해 준 자기 친구였다. 그들은 하얼빈의 친자강(秦家崗)에서 살고 있었는데, 풍경이 아름다우며 서양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 그 남학생들 숙소에는 난방기구와 서양식 침대가 있었다. 추이이모는 오빠의 소개 편지를 들고서, 마치 여학생처럼 그들의 접대를 받았다. 더욱이 그들은 이미 러시아인들의 규율인 늘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추이이모도 당연히 그들의 존중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서양요리를 청했고, 영화 보기를 청했다. 마차를 탈 때는 그녀가 먼저 타게 했으며, 이 때 그들은 그녀를 부축해주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봉사했는데, 외투를 벗을 때는 받아주었으며, 그녀가 외투를 입으려 하면 곧 그녀가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말할 필요 없이, 혼수를 사는 일은 그녀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은 아마도 그녀가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때일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으며, 야만적이지 않으며, 여자에게 무례하지 않으며, 절대로 그녀 여동생의 남편처럼 여동생을 매일 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다.

하얼빈에 혼수를 사러 갔다 오고 나서 추이이모는 시집가기 싫어졌다. 못생기고 왜소한 그 남자를 생각하면 그녀는 공포스러웠다.²⁶⁾

추이이모가 혼수를 사는 과정에서 받은 근대 지식인 남성들의 존중과 친절한 대우를 묘사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은 남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지식인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세련된 태도가 '서양화로 인한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서구 제국 근대의 실현자임을 보여준다. 인용은 근

26) 蕭紅, <小城三月>, 693쪽.

대담론 속에 나타나는 근대와 전근대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이해를 남성의 유형에 대한 추이이모의 생각을 통해 보여준다. 두 가지 유형의 남성 중 한쪽은 근대적 지식은 습득한 이들로, 그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야만적이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남성들이다. 또 다른 한쪽은 추이이모 여동생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남성들이다. 추이이모는 자신의 정혼자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후자라고 확신하고,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된다. 전근대적 가부장제를 체화한 대부분의 남성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존재라 보는 것은 당시 여성이 처해있던 일반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일 터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이이모가 경험한 근대 지식인 남성의 여성에 대한 태도 역시 일반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여성 존재에 대한 존중, 여성 주체에 대한 인정과 무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이이모의 시선을 통해 그려지는 근대 지식인 남성의 형상은 야만과는 다른 문명의 그것이었다. 앞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이이모의 인식은 작품의 전반부에 그려진, 자유연애와 결혼을 외치던 근대 지식인 남성이 집안이 정한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이이모는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이 근대적 지식인과 결혼했을 때 일어날 불행을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녀가 경험한 근대적 삶과 근대 지식인 남성의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그 같은 삶을 꿈꾸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용에서 나타나듯, 추이이모에 대한 근대 지식인 남성의 존중과 배려는 추이이모로 하여금 자신을 '여학생'과 같다고 느끼게 만들고 '여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만든다. 근대 지식인 남성에게 있어서도 여성은 전근대적 가부장제의 삶을 수용하는 '전통적 동양 여성'과 근대 지식을 접한 신여성인 '여학생'으로 유형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근대 지식인 남성이 여성을 자신들과 자유연애를 할 조건을 갖춘 신여성-비록 여전히 실질적인 젠더 주체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과 계몽대상에 머무르거나 자신의 근대적 가치 추구를 위해 희생양이 되는 전근

대적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근대 지식인 남성에게 있어 여성은 그들과 동등한 주체라는 의미를 지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여성 생존의 문제란 자유연애와 결혼으로 대표되는 근대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전근대적 삶과 근대적 삶을 모두 경험한 경계적 인물인 추이이모의 경우, 이 두 유형의 여성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전통적인 동양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환원된다면, 그녀는 봉건종법제의 희생양으로 전근대가 갖는 여성 생존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드러내는 존재가 됨으로써, 전근대적 삶에 이원대립적인 근대적 가치가 의미를 획득하게 한다. 하지만 추이이모는 눈앞에 닥친 결혼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미루고자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고, 서양 학당의 여학생이 되고 싶었던 의도와 다르긴 하지만 사숙 형태의 전통적 교육이 허용된다. 그리고 결혼을 끝내 피할 수 없었던 추이이모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병을 얻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한 전통적인 동양 여성의 전형이 아님을 보여준다. 투사의 형상은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주어진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신여성이 되진 못했으나 추이이모는 여학생이라는 신여성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존재였다는 측면에서도 그녀는 전통적 동양 여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이 같은 경계성은 근대 지식인 남성의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죽음으로 나아가던 추이이모가 만나고 싶었던 인물은 사촌오빠였음이 분명했다. 동경과 추구의 대상이었던 사촌오빠와의 만남이 그의 적극적 의지에서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요청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추이이모를 만나는 다음과 같은 광경 속 그의 태도를 통해 근대 지식인 남성과 여성 생존의 문제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오빠가 들어갔다. 추이이모의 베개 옆에 앉아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추이이모의 이마를 만지려 하며 말했다. “좀 괜찮아졌나요?” 그가 손을 막 뺨으려 하는 순간, 추이이모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서 큰 소리 내며 울기 시작했다. 마치 마

음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오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두려워졌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추이이모의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²⁷⁾

인용은 병상의 추이이모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에 연연해하는 사촌오빠의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애가 아님을, 그리고 근대 지식인 남성이 개체로서의 여성존재에 무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대 지식인 남성에게 있어 여성은 계몽의 대상이거나 자유연애의 대상이거나 강제 결혼 후 버림받는 희생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존재였던 것이다. 작품은 추이이모의 죽음 원인을 마지막까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존재가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추이이모가 경험했던 근대적 삶이란 그녀의 생존 조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사촌오빠와 그의 친구들의 형상을 통해 근대 지식인 남성이 여성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은 여성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원치 않는 결혼을 위해 혼수를 사러 간 자신을 근대 남성의 매너로 맞이하는 모습을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으로 읽어낸 것 역시 추이이모의 비극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지식인 남성들이 주장한 자유연애를 비롯한 근대적 담론은 남성 중심의 근대적 이념과 연관된 것으로 여성 생존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중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적 삶을 꿈꾸는 전근대적 여성이었던 추이이모의 죽음에 대해 사촌오빠는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녀의 비극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었던 강제 결혼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작품 서두에서 그려지는 근대 지식인 남성이 전근대적 여성인 아내를 소외시켰던 모습은 추이이모의 이러한 경험과 겹쳐지면서, 추이이모로 하여금 여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싶게 만들었다.²⁸⁾ 전근대적 여성의 불행한 삶

27) 蕭紅, <小城三月>, 695쪽.

28) 蕭紅, <小城三月>, 685쪽. “추이이모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평론을 들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공부할 하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인지를 물었고 나는 당연히 나쁘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우리 집안의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모두 학생

을 근대적 배움의 부족에서 찾고서 여학생을 꿈꾸었던 추이이모가 만약 그러한 배움을 통해 신여성이 된다고 해서 주체적 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의 여부는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화운동 시기 신여성의 삶이 보여주는 교육과 혼인자유권과 같은 형식상의 평등이 젠더 차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자유와는 다른 것이었다²⁹⁾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 론

<소성삼월>을 비롯하여 샤오홍의 후기 창작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주목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전작인 《생사장》이 샤오홍 여성의식을 찾을 수 있는 대표작으로 거론된다. 본고는 샤오홍의 후기작에서 그녀의 여성의식이 좀 더 본질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소성삼월>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였다. 여성의 형상이 민족국가담론, 근대화 담론 등에서 투사나 전사, 어머니, 계몽대상과 같은 형상으로 환원되어 읽히는 것과 달리, 그리고 저항성과 반항성이 직접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의미를 갖게 되는 것과 달리, 샤오홍의 후기 창작에 나타나는 여성과 그녀들의 삶은 주류 담론과 상관 없이 여성의 생존 조건 자체를 살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후란강 이야기》로 대표되는 후기 창작에 대한 기존의 박한 평가가 후평, 마오둔, 왕야오(王瑤) 등과 같은 비평가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이 공통되게 작품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³⁰⁾은 샤오홍이 전달하고자 했던 여성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느끼게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에서 공부하는 걸 보았다. 우리 친척들 집안의 아이들 역시 모두 공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대단하다 보게 되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9) 劉乃慈, 《第二/現代性: 五四女性小說研究》, 119쪽.

30) 王彬彬, <關於蕭紅的評價問題>,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1년 제8기, 4-5쪽.

을 방법론으로 삼아 <소성삼월>을 살펴보고자 했다. 근대 지식인 남성에게 샤오홍의 문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던 까닭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할 수 있다. 나아가 제3세계 여성의 실질적 삶이란, 근대담론의 기준 속에서 읽히는 전근대적 가부장제 하의 고통스런 삶이라고 일괄적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근대 지식인 남성이 주체가 되는 근대담론이 여성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함으로써 여성을 소외시키는 상황이 후기 샤오홍 창작에 나타나는 여성 의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蕭 紅, 《蕭紅全集(上, 下)》,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1991.
- 강명관, 《열녀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3.
- 김택현, 《라나지트 구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유제분 엮음,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서울: 현대미술사, 2001.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2001.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화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고양: 인간사랑, 2008.
- 다이진화 지음, 배연희 옮김, 《성별중국》, 서울: 여이연, 2009.
- 로절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울: 그린비, 2016.
- 리타 펠스키 지음, 김영찬, 심진경 옮김, 《근대성의 젠더》, 서울: 자음과 모음, 2018.
- 丁言昭, 《蕭紅傳》, 江蘇: 江蘇文藝出版社, 1996.
- 皇甫曉濤, 《蕭紅現象》,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0.
- 劉乃慈, 《第二/現代性: 五四女性小說研究》, 臺北: 臺灣學生書局, 2004.
- 孟 悅·戴錦華, 《浮出歷史地表》, 河南: 河南人民出版社, 1989.
- 曉 川·彭 放 主編, 《蕭紅研究七十年 上下》,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011.
- 김현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대한 그람시의 개입 — 서발턴과 재현>, 《서양사론》 제140호, 한국서양사학회, 2019.

肖小雲, <突圍與陷落 - 從現代文學女性寫作看女性啓蒙的艱難性>, 南京大學校 박사논문, 2016.

宋藝焱, <內外力量的反向撕裂, 靈魂幻滅的必然落腳>, 《青年文學家》 2020년 제2호.

劉 禾, <文本, 批評與民族國家文學>, 王曉明 主編, 《批評空間的開創》, 上海: 東方出版中心, 1998.

王彬彬, <關於蕭紅的評價問題>,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1년 제8기.

< Abstract >

Study on Xiao hong's March in the Town(小城三月)

Sung, Okrye

Xiao Hong蕭紅, as a female writer, stuck to her own features of creation keeping an eye on beings who couldn't be treated as a group such as nation and class, in the literary field which too many discourses of nationalism and class were prevailed. We can search out her efforts to put survival conditions of subaltern into her works in March in the Town(小城三月). In this work, aunt Cui(翠)' life and death was depicted. She was one of lower class women but her problem was not financial things. She chose to die when she was forced to marry by patriarchy in the town which modern and pre-modern elements were mixed. This story is not a narration of modernization which reveal pre-modern imbecility and suppression of women, and pursue modernization. She was a female subaltern who was doubly excluded as a woman and widow's daughter under patriarchy of pre-modernization and also needed to be educated with modern education. Male modern intellectuals in the work spoke out free love, free marriage and gender equality, but they didn't understand Cui's personality as a woman and cause of her death. On the contrary, they let her experience visionary modern life, which make her feel intolerable fear. Finally it drove her

to death. I think contradictory value and subject of modern and pre-modern can't explain aunt Cui's life and death, and this situation shows trouble of female subaltern in the field of post-colonial feminism and the question of representation on them.

Key Words: Xiao Hong(蕭紅), March in the Town(小城三月), Post-colonial feminism, Female subaltern, Gender, Pre-modern, Modern, Male modern intellectuals

투 고 일: 2021. 04. 30.

심 사 일: 2021. 05. 12. - 2021. 06. 05.

게재확정일: 2021. 06. 05.